

# “부모·형제·이웃·산천초목도 부처예요”



##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

삼일수심천재보 백년탐물일조진(三日修心天載寶 百年食物一朝塵),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평생 동안 탐착한 재물은 하루아침의 티끌과 같다.’는 <초발심자경문> 구절을 듣고서 현해 스님은 그 자리에서 발심하였다. 그리고 출가를 결심하였다.

현해 스님은 월정사에 도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건만 도인은 만나지 못하고 나무하고 밥 짓는 일을 하였다. 그렇게 해서 불가에 발을 들여 놓은 지 반세기가 지났다. 현해 스님의 반세기를 돌이켜 보면 24년 동안은 불학연구에 전념하였고 24년 동안은 사판에서 일하였다.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월정사 서울 포교당 법종사를 찾았다. 현해 스님은 월정사 주지소임이 끝나는 그 날로 이곳 법종사로 내려와 버렸다. 이런저런 소임을 다 놓아버리고 나니 참으로 편안하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요즈음은 소일 삼아 붓글씨를 쓰고 있다지만,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옷투이 붓과 먹을 대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수행의 일환이 아닌가 싶다. 공간 가득 채우고 있는 은은한 묵향 또한 현해 스님의 수행의 향기로 다가온다.

현해 스님은 도를 깨치겠다고 출가하였지만, 견성성불은커녕 출가할 때 보다 한결 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스님의 이런 한탄은 한탄에 지나지 않는다. 현해 스님은 법화경 연구에 일생을 다 바쳤고, 우리나라에서 법화경의 권위자이다. 중앙승가대학교와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오랫동안 법화경을 강의하였다. 스님의 독특한 시각으로 <법화경요품강>을 펴냈으며, 산스크리트어본·한문번역본·영문번역본·한글번역본 등을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묘법연화경>을 완간했다.

현해 스님은 <법화경요품강>에서 ‘상불경 보살품’을 비중 있게 소개하였다.

<...상불경 보살은 멀리서 사부대중을 보면 쫓아가서 예배하고 찬탄을 하였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가버이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반드시 성불하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가운데는 상불경 보살이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화를 내거나 돌로 매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상불경 보살은 굽히지 않았다.>



공부하던 시절의 검소함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도 공직을 맡은 자는 공금을 무섭게 여기고 수행자는 돈을 멀리해야 한다는 스님의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들은 가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와 반대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업을 베풀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로 돌아갈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은 자신이 지닌 것이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라는 것은 과욕을 부리지 말고 헛된 꿈이나 망상을 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해 스님은 은사 스님께 배운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어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절에는 어른의 말씀이 곧 법이요 진리였다. 다른 한 가지는 절을 증진하는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밥을 굶더라도 불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화 스님은 20년 동안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아서 1964년 적광전을 증창한 것을 시작으로 전각 10여동을 복원하였다.

현해 스님은 그러한 은사스님의 뜻을 받들어, 12년 동안 주지를 지내면서 용검루, 삼성각, 법종루, 보장각, 불이문, 성보 박물관, 서별당 등을 고쳐 짓거나 새로 지었다. 가람을 수호하는 일 또한 수행의 한 가지였기에 현해 스님은 그 어느 것도 허수오이 하지 않았다.

스님이 월정사에서 공양주 소임을 맡아 일할 때이다. 저녁 공양 준비를 위해 지장암에서 포교버섯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월정사로 가기 위해서는 내를 건너야 하는데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건너가기에는 무리였다. 지장암에서 하룻밤을 머물다 가도 되지만, 기어 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에 들어갔다. 걸 보기도 물살이 훨씬 거세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현해스님은 몇 번이나 물살에 휩쓸려 물을 들이마시면서도 은사스님께 공양을 지어 올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버섯이 들어있는 무거운 바랑을 벗어 던지지 않았다. 세찬 물살 속에서 스님은 ‘이렇게 해서 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내를 건너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은사스님께 저녁 공양을 지어 올렸다.

스님은 사회가 아무리 혼탁해도 자신의 심지가 굳다면 흔들릴 일이 없다면 사람의 마음은 솜과 같다고 하였다. 잉크 옆에 가면 잉크를 빨아들이고 먹물 옆에 가면 먹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속성이다. 쉽게 빨아들이지 않으면 솜을 기름에 볶 적셨다가 건져내면 어디에 가도 물들지 않듯이, 부처님 교리로 무장되고 그 속에 폭 짊어버린다면 물들 일이 없는 것이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상불경 보살이 ‘당신은 성불할 것입니다’고 외쳤듯이 현해 스님 또한 혼탁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 보여 주고 있다.

문운성(수필가·본지는설위원)



현해 스님은

1958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만화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였다. 1992년부터 2004년 1월 까지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조계종 제 3·7·10대 중회의원을 지냈다. 지금은 법종사에 주석하고 있다. <법화경 요품 강>, <마하지관연구>, <묘법연화경> 등을 펴냈다.

수행자는 돈 멀리하고 검소한 생활을 부처님 교리로 무장하면 마음동요 없어 선업 베풀면 모두 자신에게 돌아올 것

현해 스님은 ‘상불경 보살품’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였다.

“상불경 보살은 한 번도 경전을 독송한 적이 없는데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한 공덕으로 성불하였어요. 반면에 그를 구박한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본성만 믿으면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성번시광정설(溪聲便是廣長舌) 계곡의 흐르는 물소리 모두가 부처님 말씀인데 산색기비정정신(山色豈非清淨身) 산천

초목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겠는가.

현해 스님은 소동파의 시 한 구절을 읊으면서 “내 자식도 부처요. 내 부모도 부처요, 내 형제도 부처요, 내 이웃도 부처지요. 더 나아가서는 저 산천초목 흐르는 냇물, 나무, 돌 등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라고 덧붙였다.

현해 스님의 신념은 검소한 삶이다. 스님이 월정사에서 행자생활을 할 때는 절 살림이 참으로 궁색하였다. 겨울에는 알곡은 구경할 수도 없었고, 감자와 옥수수만

으로 끼니를 때웠다. 어느 날 모처럼 시주로 들어온 쌀 몇 톨을 땅에 흘렸다가 두 시간 넘게 끄적 못하고 서서 은사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검박한 생활이 몸에 밴 현해 스님은 후지 한 장도 아껴 쓰며 양말도 기워서 신는다.

스님 또한 상좌들에게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지만, 요즈음에 와서는 이러한 가르침에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옛날에야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한 시절이며, 속가에서 풍족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닌가. 스님이

##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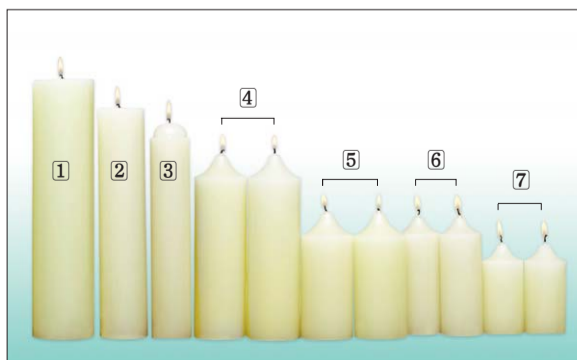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①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 선물세트
- ② 밀납초금강경(7개入) 선물세트
- ③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④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⑤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⑥ 밀납초 2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⑦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⑧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쑥향 양초

- ① 원기둥 7.4φCm × 29Cm ⑥ 3호 4.7φCm × 13Cm
- ② 돈타레 5.6φCm × 27Cm ⑦ 4호 4.7φCm × 10Cm
- ③ 밀 대 4.7φCm × 25Cm
- ④ 1호 5.9φCm × 20Cm
- ⑤ 2호 5.9φCm × 14Cm

##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 35cm
- 야광 용초 70φ × 35cm
- 원기둥 마패 동신불 마패 7.4φ × 30cm
- 원기둥 마패 동신불 마패 4.7φ ×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창에 양초.net